

지역 소식통

부안참뽕 미용제품 출시

부안농업기술센터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나우코스과 손 잡고 참뽕미용 제품을 출시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뽕잎과 오디추출물을 원료로 한 미용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없고 미백, 주름개선의 효과가 입증돼 이제는 참뽕의 유용한 기능을 미용제품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모바일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화학성분을 기피하는 소비자 기호에 발 맞춘 천연재료 미용제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뽕나무는 모바일 유통과 피부건강을 촉진하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부안군은 모든 미용제품의 주요성분을 EWG 그린등급으로 유지해 피부자극을 최소화 하고 천연 유래성분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웰빙, 자연주의 등 최근 소비트렌드와 부합하면서도 푸드 컨셉의 미용제품이어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지역 특산 미용품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도시재생 실천사업 공모

정읍시가 오는 16일 저녁 6시까지 2020 도시재생 실천사업 공모전을 접수한다.

2020 도시재생 실천사업 공모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사가지 활성화와 관련한 콘셉트 발굴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사가지지역)의 일환으로, 공모주제는 ▲상권별 상품(시제품) 개발 ▲떡·차·면·술 등 장인에 대한 기록물 ▲정읍을 대표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개발 ▲기존 상품에 대한 개선(포장, 구성, 디자인 등) ▲상가 활성화 사업(경관개선, 환경정비 등)이다.

기존 도시재생 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주도의 도시재생 실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상권별 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외부 관광객 유입 아이디어 발굴사업 등을 선정 후 실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엄중한 시기 함께 극복을”

유진섭 정읍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기자회견 양지마을 주민 3명 추가 확진... 연휴발 12명으로 늘어

유진섭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정읍 시청 다목적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에 따르면, 앞서 집단 감염으로 마을 전체가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던 경우 양지마을 주민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총 3명으로 이로써 추석 연휴 직후 발생한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들을 즉시 군산의료원으로 격리 병실에 입원 조치하고, 확진자 동선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을 파악하고, 핸드폰 위치추적과 카드사용 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코로나19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동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격려하고 통제에 잘 따라주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양지마을 전 세대에는 소독약과 마스크를 배부하고, 필수 생필품을 지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층적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고강도로

보완·강화하고 방역을 위해 모든 물적, 인적, 행정력을 총동원해 힘을 것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10인 이상 모임 자제,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 접촉 자제,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감염병 T/F를 즉각 구성해 검체 검사와 역학조사, 방역기동반 출동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시기가 엄중한 만큼 시민들도 시를 믿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유진섭 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정읍시청 다목적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풍미인쇼핑몰’ 추석맞이 ‘매출 6억’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시가 직영하며 품질을 보증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단풍미인쇼핑몰’ 추석맞이 명절상품관 운영으로 매출 6억 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명절상품관은 명절선물로 인기 있는 한과, 한우, 송편, 햇잡곡 등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10+1 등 묶음할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8일과 9일에는 ‘더 8·9 싶은 세일’ 이벤트를 실시해 소비자가 질 좋은 상품을 가격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대상 추첨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함께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장 매출이 높았던 품목은 한우와 한우가

공품이었고, 한과 및 부각 쌀 잡곡류, 건강기능식품, 장아찌류, 떡류 순으로 매출을 올렸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명절선물 또한 믿을 수 있는 지자체 농특산물 구매로 이어진 결과”며 “앞으로도 쇼핑몰 내 다양한 상품구성과 마케팅, 입점상품 품질관리를 통해 지자체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무료 쿠폰으로 가족 외식 즐기세요”

고창군, 저소득층 외식지원

고창군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외식지원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추진 한다.

지원대상은 다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외식이 어려운 가정 52가정 185명을 추천받아 외식쿠폰을 지원한

다. 쿠폰을 받은 가정은 기념일 등 가 구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 내 가족별 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각계 사회단체와 한부모 첫수도 밥상 지정 업체에 의사를 확인하고, 외식업체별 사정에 맞춰 제공금액, 제공횟수, 사용기간 등 요청사항을 반영한 외식쿠폰을 제작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역사동아리(가) 2020년 전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운영 동아리'로 선정됐다.

고창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성내문지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동아리’ 선정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역사동아리가 2020년 전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운영 동아리'로 선정됐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스스로 활동의 목표와 방법을 정하고 실행하는 봉사활동이다.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역사동아리 '성내문(文)지기' 20여명은 민화로 보는 문화재, 문화재 UCC와 같은 영상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성내 문(文)지기'는 이번 시범운영 동아리 선정을 통해 소정의 활동비와 동아리 지도를 위한

활동가 연계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성내 문(文)지기'의 활동이 소개되면서 아이들은 동아리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선정된 동아리 회원들은 청소년지원 봉사자 교육,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교육 등의 역량 강화교육, 정기회의 및 UCC제작활동, 청소년여름캠프 부스 운영, 지역연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내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총력”

후반기 부안군의회 출범 100일

제8대 후반기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개원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9일 제8대 후반기 부안군의회 원구성(의장 문찬기)이 마무리 되고 개원한 이후 부안군의회는 '책임'과 '일'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라는 비전을 실현

해 나가기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의원들 모두 함께 단합된 힘으로 서로 협력하며 부안군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제8대 후반기 부안군의회 출범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의회=제8대 후반기 부안군의회는 노을대교부

창대교건설 촉구 건의안을 의원 민중일치로 채택해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송부하는 등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현재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 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에는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 수정가결 1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이 포함돼 있다.

▲집행부예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지난 7월 부안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를 통해 부안군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결과에 대한 실질적 업무 점검을 요청하는 등 추진이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심도 깊은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활성화 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